

미국 경찰드라마에 표현된 하위문화 집단의 의상 연구

A Study on Costumes of Subcultural Communities
expressed in American Police Procedurals

주저자

류수현 (Rhew, Soohyeon) dra79@hanmail.net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시간강사

Instructor,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투고일	2020.09.10	심사일	2020.09.22	게재확정일	2020.10.27
-----	------------	-----	------------	-------	------------

미국 경찰드라마에 표현된 하위문화 집단의 의상 연구

A Study on Costumes of Subcultural Communities expressed in American Police Procedurals

목 차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범위와 방법
 2. 이론적 배경
 - 2-1. 경찰드라마의 장르적 특성
 - 2-2. 하위문화 집단에 대한 고찰
 - 2-2-1. 흡혈족
 - 2-2-2. 프레피
 - 2-2-3. 해커
 - 2-2-4. 노숙자
 3. 하위문화 집단의 의상 분석
 - 3-1. 흡혈족
 - 3-2. 프레피
 - 3-3. 해커
 - 3-4. 노숙자
 4.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Abstract

Subculture communities that repeatedly appeared in 4 american police procedurals(CSI: NY, Bones, Law & Order: Criminal Intent, and Castle) that have been successful for more than five

years since 2000 were selected. The formal characteristics and internal meanings of the costumes of the vampirism, preppie, hacker, and homeless people were analyzed. Vampirism usually wear makeup similar to vampires and wear black punk looks and goth look-like outfits. It was expressed in anti-social and sensual images through garments and accessories of resistant messages and costumes that reveal the human body sensually. Preppie was expressed in elite and status-symbolic images by wearing school uniforms or Ivy League-style costumes with prominent school emblems. Hacker showed practical and infantile images by continuing to wear clothes that he usually wore in infancy or mainly wearing clothes of practical casual style because he lacked social skills and had a lot of time to work alone in front of a computer. The homeless showed mismatch and poor images, expressed as a combination of unsanitary and incomplete costumes by recycling discarded clothes caused by difficulties in normal economic life due to exclusion from society.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various subculture groups in recent years, and the analysis results of their costumes can provide drama costume designers with basic data on the costume design of similar characters.

keyword

Subculture, American Police Procedural, Drama Costume

논문요약

2000년 이후 5년 이상의 시즌동안 흥행에 성공한 경찰드라마 4편(CSI: 뉴욕, 본즈, 뉴욕특수수사대, 캐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하위문화 집단으로 흡혈족, 프레피, 해커, 노숙자 집단을 선정하여 의상의 형식과 이미지 특성을 분석하여 드라마 속에서 하위문화 집단의 의상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흡혈족은 흡혈귀와 흡사한 분장을 주로 하며 검정색의 핑크 룩, 고스 룩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였다. 저항적 메시지의 의복과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인체를 드러내는 의상을 통해 반사회적 이미지와 관능적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프레피는 학교 엠블럼이 두드러진 교복이나 아이비리그 스타일의 의상을 착용함으로써 지위상징적 이미지와 엘리트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해커는 사회성이 부족하고 컴퓨터 앞에서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많아 유아기에 주로 입던 의복을 계속 입거나 실용적인 캐주얼 스타일의 의복을 주로 착용함으로써 실용적 이미지와 유아적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노숙자는 사회에서 배척되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힘들어 버려진 옷을 재활용함으로써 비위생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의상의 무작위적인 조합으로 표현되어 부조화의 이미지와 빈곤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의 다양한 하위문화 집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의상에 대한 분석 결과는 드라마 의상디자이너들에게 유사한 캐릭터의 의상 디자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주제어

하위문화, 미국 경찰드라마, 드라마 의상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인터넷, 케이블TV등을 통해 해외 드라마, 영화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국내에서도 많은 미국 TV드라마 시리즈들이 유행하고 있다. 특히 CSI와 같은 범죄를 해결하는 경찰이 등장하는 드라마의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하종원, 2014).¹⁾ 이러한 경찰드라마는 범죄를 해결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고전적이고 보수적인 형태의 스토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기에 타 장르보다 현실 반영성이 높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에피소드에 담아내기 위해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소재로 삼고 있다. 즉, 다양한 지역, 지위, 직업, 인종, 문화권 뿐 아니라 다양한 하위문화 집단이 소재로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드라마 속에서는 하위문화 집단의 정체성을 극명히 보여주기 위해 시각적으로 집단의 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의상을 착용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다른 드라마들에서 유사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배 문화에 대한 하위집합으로 개념화될 수 있는 하위문화는 계급이나 성, 세대 등으로 구분되는 커다란 범주 속에 속하면서도 각기 다른 속성에 의해 구별되는 다양한 소집단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반영하는 문화이다(양미경, 2003).²⁾ 지배적 가치체계에 대해 하위집단은 특유의 성격을 반영하는 해독과 변용의 차별적 형태들을 보이고 이것이 다양한 하위문화를 구성하게 된다(양미경, 2003).³⁾ 이러한 차이는 하위문화 집단의 의복스타일에도 반영된다. 하위문화 집단의 구성원들은 그들만의 가치관에 따라 독특한 의복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들은 연기뿐 아니라 외모, 의상을 통해 극의 흐름을 표현한다. 특히 의상은 배우와 일체가 되어 시각적으로 캐릭터를 표현해 준다. 이에 의상에는 캐릭터의 성격 뿐 아니라 캐릭터가 형성된 사회문화적 배경도 표현된다(류수현과 노주현, 2013).⁴⁾ 하위문화 집단에 소속된 캐릭터의 경우 하위문화 집단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그 집단의 가치관, 태도에 기반하여 의상을 착용하게 된다. 따라서 자주 등장하는 하위문화 집단의 캐

릭터 의상에 대한 연구는 의상을 통한 다양한 캐릭터 표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드라마 의상에 대해서는 극의 흐름과 관련한 캐릭터 의상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으며 캐릭터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의상의 유행성, 사극의 시대성 반영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영화 의상 연구에서는 국가 별 문화의 비교, 페미니즘적 관점, 성, 직업 등과 연관되어 캐릭터의 의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류수현과 노주현, 2013).⁵⁾ 또한 여러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대해 공통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 중에는 뱀파이어 캐릭터, 팜프파탈 캐릭터, 악인 캐릭터, 슈퍼영웅, SF영화 캐릭터, 판타지 영화 캐릭터, 사이코패스 캐릭터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류수현, 2014).⁶⁾ 그러나 하위문화 집단의 캐릭터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산출되는 문화 산물들은 대중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이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향유되기 위해 대중의 취향과 행동방식 등을 필연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중문화 연구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문화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다(김창남, 2003).⁷⁾ 특히 경찰드라마와 같이 현실 반영성이 강한 드라마에 있어 캐릭터의 의상은 사회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하위문화 집단 캐릭터의 의상에 대해 하위문화 집단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미국의 경찰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하위문화 집단에 대해 살펴보고 그들의 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의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의 미국 경찰드라마에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하위문화 집단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하위문화 집단이 겪는 가치문제, 타 문화 집단과의 갈등 등의 문제를 범죄의 형태로 다루면서 하위문화 집단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2000년 이후 대중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미국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경찰드라마를 선정하고 이 드라마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하위문화 집단을 추출하여 의상의 형식을 분석하고 드라마 속에서 나타난 이미지 특성을 도출하여 경찰드라마 속 하위문화 집단 의상의 표현방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의상디자이너들에게 있어 미디어에 표현된 의상에 대한 분석은 차후 의상 디자인 전개에 있어서 유사 캐릭터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경찰드라마의 제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드라마와 관련된 의상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한 기초자료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중성을 가진 작품들을 통해 얻어진 의상디자인 분석 결과는 의상디자이너 뿐 아니라 대중들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분석결과를 통해 대중과 사회가 하위문화 집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위문화 집단은 점점 다양해져가고 있으며 더 많은 하위문화 집단이 생겨나고 있다. 가치관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그들의 의복에 대한 분석은 비록 미디어에 나타난 형태라는 한정된 범주이긴 하지만 사회의 구성원인 하위문화 집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1-2.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에 등록된 2000년대와 2010년대 미국 TV 범죄드라마 목록에서 5년 이상 시즌이 지속되고 대중성과 흥행성을 평가받은 경찰드라마를 1차적으로 추출한 후 미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 4편을 선정하였다. 미국 뿐 아니라 한국 등 세계로 수출되어 방영된 경찰드라마인 CSI: 뉴욕(CSI: NY, CBS 제작, 2004년~2013년, 총 9시즌), 뉴욕특수수사대(Law & Order: Criminal Intent, USA Network 제작, 2001년~2011년, 총 10시즌), 본즈(Bones, 미국 FOX 제작, 2005년~2017년, 총 12시즌), 캐슬(Castle, ABC 제작, 2009년~2016년, 총 8시즌)을 선정하였다(〈표 1〉). 여러 영화 혹은 드라마에 걸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캐릭터에 대한 연구는 주제에 맞는 캐릭터 선정과 영화 및 드라마의 선정이 중요하며 대개 흥행성적, 수상내역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며, 그러한 연구 범위 내에서 주제에 맞는 캐릭터를 분류해야 한다. CSI: 뉴욕, 캐슬, 뉴욕특수수사대는 뉴욕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본즈는 워싱턴D.C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도시들은 미국 동부의 대표적인 대도시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어 다양한 하위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유사한 지역적 배경 하에

서 표현된 하위문화 집단의 의상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선택하게 되었다.

CSI: 뉴욕은 2000년에 시작된 CSI: 라스베가스의 스핀오프 드라마로 배경이 뉴욕이며 원작과 같이 과학 수사대가 과학수사기법을 통해 범인을 찾아내는 형식을 지니고 있다. 2008년~2010년에 Image Awards의 상을 비롯하여 총 12개 상을 수상하였으며 MomieGuide Awards를 비롯하여 2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다("CSI: NY", 2020).⁸⁾ 뉴욕특수수사대는 뉴욕경찰소속 형사가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범인을 잡는 정통 추리 수사물로, 뉴욕을 배경으로 하여 다양한 문화들을 엿볼 수 있다. 2005년 Edgar Award에서 TV시리즈부문 베스트에피소드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6개 상을 수상하였으며, 새틀라이트상 등 다수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다("Law & Order: Criminal Intent", 2020; "Law & Order: Criminal Intent Awards", 2020).⁹⁾¹⁰⁾ 본즈는 미국 최고의 뼈 전문 박사과 FBI요원이 시체의 뼈에 남겨진 단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로 과학 수사 기법을 활용한 수사가 특징이다. 2010년, 2011년 Genesis Awards의 최우수 드라마 에피소드상을 비롯하여 8개 상을 수상하였으며 42개 상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다("Bones Awards", 2020).¹¹⁾ 캐슬은 유명 미스터리 소설가와 뉴욕 경찰이 공조하여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드라마로 뉴욕의 다양한 문화적 측면이 소재로 활용되었다. 2013년 Imagen Foundation Awards의 최우수 텔레비전 프로그램상, 2015년 피플스초이스상의 TV범죄드라마상 등 20개 상을 수상하였고 25개 상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다("Castle Awards", 2020).¹²⁾ 각 드라마의 시청률은 미국 내 뿐 아니라 해외로까지 진출하여 다수 시즌동안 방영되면서 미국 내에서만 모두 시즌 당 수백~수천만 명의 평균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다("CSI: NY", 2020; "Bones", 2020; "Law & Order: Criminal Intent", 2020; "Castle", 2020).¹³⁾¹⁴⁾¹⁵⁾¹⁶⁾

이 드라마들에서 1회 이상 공통적으로 주요 소재로 다룬 적이 있고 현실 사회에도 존재하고 있는 하위문화 집단을 선정하였다. 한 드라마에만 등장하는 집단이라면 드라마의 고유한 표현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으나 여러 경찰 드라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집단이 유사한 형태로 등장한다면 공통된 대중의 인식이 형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총 4개 집단이 선정되었는데 흡혈족(Vampirism), 프레피(Preppie), 해커(Hacker), 노숙자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드라마 속에서 등장하는 화면을 캡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범죄와 관련하여 주요 캐릭터로 등장하는 경우 하위문화 집단의 일원 한 명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 여러 집단 구성원이 등장하게 된다. 각 드라마별 1회 이상 최소 4회 이상 등장하는 하위문화 집단의 의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단, 본즈에서는 흡혈족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다른 드라마 세 편에서 유사한 형식적 특성을 가지고 등장하였고 시각적 특성이 뚜렷이 구별되었으며 분석에 사용된 착장 수도 다른 하위문화 집단과 비교하여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표 1>에서는 드라마별 각 하위문화 집단이 등장한 시즌 및 에피소드 번호를 00-00의 형태로 제시하였으며, 하단에 분석에 사용된 집단 별 착장 수의 총합을 제시하였다.

<표 1> 각 드라마별 하위문화 집단이 등장한 시즌과 에피소드 정보(시즌번호-에피소드번호) 및 분석에 사용된 의상 착장 수

드라마 제목	흡혈족	프레피	해커	노숙자
CSI:뉴욕	6-14	7-17 4-5	5-2 5-13	1-19 6-11 8-10
뉴욕특수수사대	9-11	3-9	10-3	1-3 1-4 1-11 2-2 2-14 4-6
본즈		1-3 10-17	7-13 8-1 8-12	1-16 8-6
캐슬	2-6	1-3	6-12 8-2	2-6 6-12
분석에 사용된 의상 착장 수	19	22	14	29

드라마에 나타난 각 하위문화 집단에 대하여 해당 집단의 배경과 특성을 고찰하고, 캡처된 화면 속에서 나타나는 의상의 형식을 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어떤 이미지로 표현되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하위집단 구성원의 전반적인 외양의 시각적 분석을 위해 복식 뿐 아니라 헤어, 메이크업을 포

함한 분장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미지는 주어진 자극에 과거의 경험, 기억의 상호작용 및 개인 각자의 생활환경에 의한 연상이나 감정 등이 총체적으로 지각되어서 어떠한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실제의 시각적 표상이다(이효숙, 2004).¹⁷⁾ 본 연구에서는 하위문화 집단의 문화적 배경과 대중매체에 등장한 하위문화 집단에 대한 묘사를 바탕으로 하위문화 집단의 의상의 이미지 특성을 분석하여 하위문화 집단이라는 집단적 캐릭터 의상의 표현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경찰드라마의 장르적 특성

장르는 내러티브 체계와 영상 스타일에 의해 분류되는 스토리의 유형 및 범주를 일컫는 용어이다. 영상매체에서 장르는 반복성의 패턴을 보여주는 이야기 방식과 영상스타일로 구성되며, 따라서 특정 장르의 이야기 구성은 해당 장르의 다른 많은 작품들에서 사용된 일정한 패턴의 공식을 활용한다고 여겨진다(박승현과 이윤진, 2007).¹⁸⁾ 즉 장르 내에서는 일정한 표현 방식을 공유하고 있다.

수사드라마, 범죄드라마나 경찰드라마는 텔레비전이 등장한 초기부터 대중적 인기를 누리왔으며, 가장 유행한 장르 중 하나이다(하종원, 2014).¹⁹⁾ 이 장르에 대해서는 범죄드라마, 수사드라마, 탐정드라마, 경찰드라마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크게 나누어 보자면 수사드라마는 수사의 과정을 거쳐 범인을 검거하는 것을 스토리의 중심으로 삼고 있으며 추리물은 추리 자체가 서사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권양현, 2013).²⁰⁾ 그 중에서 수사드라마의 하위분류 중 하나인 경찰드라마는 사건해결의 주체가 경찰 혹은 경찰과 같이 사법권을 가진 집행자 인 드라마로, 본질적으로 법과 질서의 지배적인 상식적 가치관을 되풀이하는 보수적인 형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하종원, 2014).²¹⁾ 미국, 일본, 한국 등 세계를 막론하고 경찰드라마의 원형은 치안당국, 즉 경찰기록을 바탕으로 한다(권양현, 2013).²²⁾

경찰드라마는 21세기에 들어와 더욱 다양해져 가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수사 기법에 따라, 대응하는 특정 범죄에 따라, 그리고 범죄 수사의 주체가 일반 경찰과

형사에서 과학수사대원이나 FBI 요원 혹은 특수범죄 전담 요원들로 더욱 세분화되고 변형되면서 전통적인 경찰드라마를 넘어서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하종원, 2014).²³⁾ 특히 경찰드라마의 범람은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으며 그 중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다양한 하위문화 집단이다. 이러한 경향은 장르적 특성에 반영되어 같은 하위문화 집단이 여러 드라마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범죄드라마는 가능한 매우 집중적으로 정직한 방식으로 우리의 사회적 관습을 반영했으며 끊임없이 반영하고 있다(Snauffer, 2006).²⁴⁾ 경찰드라마는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실제 사회를 보다 밀접하게 반영한다(하종원, 2014).²⁵⁾ 경찰드라마 속에서 등장하는 하위문화 집단은 실제 사회에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의 모습과 가깝게 묘사되고 있다.

TV경찰드라마의 제작자들은 가능한 많은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수용자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가치관 및 범죄에 대한 감정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에서 영화보다는 TV드라마가 좀 더 대중성과 사회성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TV 경찰드라마에서 등장하는 하위문화 집단에 대한 묘사는 현실성도 반영함과 동시에 대중들의 그에 대한 인식도 반영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TV 경찰드라마 속 하위문화 집단 의상에 대한 연구는 드라마 속 캐릭터의 의상 연구로서의 의의와 함께 대중이 그 하위문화 집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2. 하위문화 집단에 대한 고찰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하위문화 집단들이 그들만의 가치관, 행동양식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만 일부는 겉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거나 접근하기 위험한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대중매체 속에서는 이러한 장벽 없이 다양한 하위문화 집단을 접할 수 있다. 이에 선정된 경찰드라마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현실에도 존재하는 하위문화 집단으로 흡혈족, 프레피, 해커, 노숙자를 선정하였으며 이 하위문화 집단들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2-1. 흡혈족

흡혈족은 피를 마시며 죽지 않는 생명체인 뱀파이어를 본인의 아이덴티티로 여기며 이에 따라 생활하는 하위문화 집단이다(Laycock, 2010).²⁶⁾ 흡혈족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리얼 흡혈족과 라이프스타일 흡혈족이다. 라이프스타일 흡혈족은 뱀파이어 문화에 동조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뱀파이어를 연상시키는 의상을 입고 하위문화에 참여한다. 그러나 리얼뱀파이어는 스스로를 천성적인 뱀파이어라고 인지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생명체의 한 종류라고 여기고 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피를 마시거나 에너지를 흡수함을 필요로 한다고 느끼고 있다(Laycock, 2010)²⁷⁾. 이들은 만들어진 캐릭터인 뱀파이어를 숭배하는 종교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드라마에서는 이러한 유형들이 모두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자 하지는 않으나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커뮤니티를 결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Laycock, 2010).²⁸⁾

2-2-2. 프레피

미국 일류 대학의 진학 코스에 있는 사립고교의 프리퍼토리 스쿨(ppreparatory school)을 줄여서 프레피라고 하며, 그곳의 학생들을 프레피라고 부른다("프레피", 2020).²⁹⁾ 주로 미국 동북부 지역의 상류층 자제들로, 스스로를 특별한 계층이라고 여기며, 성적 등의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난 편이다. 이들은 아이비룩을 캐주얼하게 재해석하여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통적인 아이비룩은 아이비 리그(Ivy League)의 대학생들이 즐겨 입는 패션 스타일로, 스트레이트한 상의에 가느다란 넥타이와 버튼다운 셔츠를 입는 것이 특징이다(정유진, 2011).³⁰⁾

2-2-3. 해커

해커는 컴퓨터에 특출한 재능을 지니면서 기술적으로 타인의 정보시스템 등에 침입하는 행위를 시도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김범연, 2016).³¹⁾ 원래 해커는 정보공유의 철학을 주창하는 시스템 개발자를 지칭하는 말로 초기의 해커들은 대개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불필요한 정보억제를 해지하기 위해 타인의 컴퓨터에 접근하였다(이현희, 2000).³²⁾ 이후 해커들은 사

회 체제를 거부하는 반 영웅(anti-hero)에 대한 낭만적 성향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는데 1984년 설립된 해커들의 집단인 cDc(Cult of the Dead Cow)나 자칭 렉스 루터(Lex Luthor)에 의해 설립된 LOD(Legion of Doom)의 이름에서도 이러한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점차 폭력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이현희, 2000).³³⁾ 최근 들어 경쟁적으로 시스템 침입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주의적 영웅심으로 변질되었고, 전산망을 통해 다른 기관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피해를 입히는 부정적인 의미로 점차 바뀌어 갔다(이현희, 2000).³⁴⁾

해커는 법적인 권한 유무에 따라 윤리적 해커와 비윤리적 해커로 구분이 되는데, 보안 관련 종사자들이 해킹 행위를 통해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를 윤리적 해커라고 하며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해킹을 하는 경우 비윤리적 해커로 구분한다(김범연, 2016).³⁵⁾ 비윤리적 해커의 경우 대가를 바라고 행해지는 경우도 있고 장난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김범연, 2016).³⁶⁾ 해커의 대부분은 극단적 자유주의, 개인주의, 불복종주의에 근거해서 해킹을 하고 있으며(Taylor, 1999),³⁷⁾ 아무런 목적 없이 단지 즐기기 위해서 타인의 컴퓨터에 침입하고 있다(Woo, Kim & Dominick, 2004).³⁸⁾ 해킹 경험이 많을수록 범죄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는 자기통제, 윤리의식, 사회성 수준이 낮고, 공격성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신상화, 2018).³⁹⁾ 경찰드라마에서는 범죄행위의 일부로 해킹이 다루어질 때는 비윤리적 해커들이 나타났고 경찰 업무를 돕거나 기업에 고용된 윤리적 해커들도 나타났다.

해커는 정보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게 되면서 생겨난 것으로 연령층이 낮은 편이다(서성교, 2005).⁴⁰⁾ 해커 집단의 문화는 물리적 공동체 문화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해커들은 관습적인 위계질서를 갖지 않으며, 구성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들 사이에는 평등성이 적용된다(이현희, 2000).⁴¹⁾ 행위적 특성 때문에 서로 드러내어 관계를 맺거나 공동체를 끈끈하게 유지하지는 않지만 기술을 통해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컴퓨터를 매개로 유사한 행동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대개 혼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성이 부족하다(이현희, 2000; 신상화, 2018).⁴²⁾⁴³⁾

2-2-4. 노숙자

노숙자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주거단위에 대한 정규적이고 습관적인 접근이 결여된 자’로 정의될 수 있다(원정숙, 2001).⁴⁴⁾ 미국에서는 ‘고정되고, 일반적이며 적절한 잠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 또는 일시적인 주거지로서 공공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보호소나 시설, 버려진 빌딩, 차, 공원, 거리와 같이 일반적인 잠자리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김경원, 2004)⁴⁵⁾으로 정의하고 있다.

노숙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일정한 거주지에 머무르지 못하고 거리를 떠돌게 되었기에, 이들의 피폐한 생활은 알코올 중독, 마약 등의 물질 남용과 강도, 절도 등 범죄와 연결되기도 한다. 또한 노숙자들은 의타성, 욕구불만, 낭비성, 역마성, 자포자기, 열등의식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원정숙, 2001).⁴⁶⁾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혹은 사회에서 받는 불이익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는, 위험한 사람들로 고정관념이 생겨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노숙자들은 대도시 지역에 보다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대도시에 보다 많은 보호시설과 서비스가 있고, 대도시에서 취업의 기회가 보다 많을 것이라는 인식, 생활하기에 보다 편하고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이다(원정숙, 2001).⁴⁷⁾ 노숙 생활이 길어질수록 다른 노숙자와의 관계가 끈끈해지고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데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정서적으로 서로 공감하면서 유대감을 갖게 된다(최우림, 2000).⁴⁸⁾

3. 하위문화 집단의 의상 분석

경찰드라마에 나타난 각 하위문화 집단의 의상에 대하여 조형적 분석과 이미지 특성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흡혈족

흡혈족은 피를 마심으로써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범죄의 소재로 자주 등장한다. 몸에 피가 하나도 남지 않고 목에 구멍이 나 있는 시체가 발견될 경우 대개 흡혈족에 대한 수사로 이어진다. 현실에서와 유사하게 이들은 사회에 개방적으로

등장하기 보다는 지하나 보안이 강화되어 있는 회원제 클럽 등에서 피를 마시거나 유사한 종교의식을 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리얼 뱀파이어와 라이프스타일 뱀파이어들이 모두 다양한 형태로 드라마에 등장하였다. 캐슬과 뉴욕특수수사대에 등장한 라이프스타일 뱀파이어들은 특히 클럽에서 사람의 목이나 손목 등에서 직접 피를 마시거나 마시는 흉내를 내며 성적 유희의 행위와 연결되었다. 이들은 실제 사람의 피 혹은 동물의 피를 마시기도 하지만 와인 등 피와 비슷한 색의 음료로 유사한 행위만을 흉내내기도 하였다. CSI: 뉴욕과 뉴욕특수수사대에 등장한 리얼 뱀파이어는 일종의 종교인처럼 행동하였으며, 명상을 통해 흡혈공구를 자체하기도 하고 서로의 피를 마심으로써 서로가 연결되어 영생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다.

흡혈족 의상은 3개 에피소드에서 총 19개 착장이 등장하였다. 리얼 뱀파이어와 라이프스타일 뱀파이어는 의상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뉴욕특수수사대의 시즌9의 11화에 등장한 흡혈족 사진 <그림 1>을 살펴보면 좌측은 라이프스타일 뱀파이어, 우측은 리얼뱀파이어이다. 좌측의 여인은 뱀파이어에 대한 호기심과 유희의 목적으로 클럽을 찾았는데 전체적으로 검은색 드레스에 레이스 등의 장식이 많으며 네크라인이 깊게 파여 있으며 목걸이 장신구를 여러 개 하였다. 얼굴의 피부는 창백하게 하고 눈은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였고 머리는 길게 늘어뜨렸다. 이와 같이 라이프스타일뱀파이어들의 경우 좀더 장식이 화려하고 시각적으로 두드러진 경우가 많았다. 핑크 룩 혹은 고스 룩과 유사하게 주로 검정색이나 명도가 낮은 색을 사용하며, 미니 스커트나 긴 바지에 티셔츠와 재킷을 착용하였다. 스커트나 바지는 가죽소재가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 바지나 티셔츠의 경우 찢어지거나 구멍이 난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스타킹이나 상의에 시스루나 망사 소재를 사용하였고 가슴이 깊게 파인 네크라인과 몸매가 드러나는 피티드된 실루엣이 주로 나타났다. 긴 가죽 부츠를 착용하였고 스티드가 박힌 목걸이나 가죽끈이나 패브릭으로 된 목걸이나 초커를 여러 개 겹쳐서 착용하고, 십자가펜던트를 하기도 하였다. 분장의 측면에서도 피부는 창백한 기운이 도는 흰 피부색을 하고 있으며, 스모키한 아이라인과 검붉은 립스틱을 하였다. 머리는 웨이브가 거의 없이 길게 늘어뜨리는 것이 특징이다.

검정색 네일, 문신과 뱀파이어 송곳니 착용도 나타났다.



<그림 1> 흡혈족
출처: 뉴욕특수수사대 시즌9 11화 영상캡처

<그림 1>의 우측은 리얼뱀파이어로 등장한 대표적 이미지로 장식성이 과한 옷보다는 빅토리안 시대의 스타일을 입거나 혹은 그러한 스타일을 현대식으로 해석한 정제된 스타일이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빅토리안 시대의 슈트나 현대의 슈트에 빅토리안 시대의 장식이 미니멀하게 추가된 옷을 입기도 하였다. 여자의 경우 빅토리안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거나 현대식 각테일 드레스에 빅토리안 스타일의 소매나 장식이 달린 미니멀한 옷을 입었다. 창백하게 보이는 스모키 메이크업은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시대 복식을 기반으로 한 의상을 입고 그들은 말투나 행동도 시대극처럼 행했다.

얼굴의 분장을 통해 외모적인 측면에 있어서 초인간적인 뱀파이어의 외모를 흉내냄으로써 뱀파이어에 대한 숭배를 표현하였다. 뱀파이어는 피를 마심으로써 불사의 몸, 영원히 젊은 외모를 유지한다. 자연스러운 생로병사를 겪는 인간의 삶보다는 초현실적인 뱀파이어의 삶을 동경함을 외모로 표현하였는데 신체적인 매력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짧은 스커트, 인체의 곡선을 드러내는 실루엣, 망사소재, 깊은 네크라인을 통해 인체의 성적 매력을 뱀파이어의 특성으로서 표현하여 관능적 이미지로서 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가죽재킷, 스티드 등의 메탈 액세서리, 망사, 찢어진 티셔츠 등의 핑크 룩 혹은 고스 룩의 형식은 반항적인 이미지를 가진 디자인적 표현이다(박준현, 2010).⁴⁹⁾ 또한 시대를 역행한 역사적 스타일을 차용함으로써 현대 사회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났다. 뱀파이어에 대한 동경의 종교적 정신에서 비롯된

탈 인간적 행동과 탈사회적 태도는 저항과 반항적 메시지가 강한 의상 혹은 시대를 역행하는 의상들을 통해 반사회적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3-2. 프레피

드라마 속의 캐릭터 특성을 살펴보면 이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경쟁심이 강하고 성적에 예민하며, 일류 대학 진학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 범죄 소재로 등장하는 경우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한 모범생이지만 이면에는 성적 향상을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거나 친구들을 괴롭히는 캐릭터, 상류층은 아니지만 본인의 능력으로 좋은 학교에 진학하였으나 따돌림 받는 캐릭터 등이 등장하였다.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밝혀져 감옥에 가는 것보다 학교에서 퇴학당하거나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것을 더욱 염려하여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학교에의 소속감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으며 이러한 의식이 의상에도 표현되었다.

프레피 의상은 6개 에피소드에서 총 22개 착장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드라마 캐슬의 <그림 2>와 같이 블레이저, 셔츠, 타이, 베스트, 팬츠/스커트로 이루어진 교복을 착용하거나 버튼다운 셔츠, 니트베스트, 피케 셔츠, 면바지, 니트 가디건, 더플코트 등으로 이루어진 전통적 아이비리그스타일을 추구하였다. 남녀의 차이는 팬츠, 스커트의 차이 정도만 있을 뿐 전체적인 스타일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교복의 경우 컬러는 다양할 수 있으나 블루 혹은 저채도의 레드 계열이 주요색으로 주어지고 셔츠는 밝은 파스텔 톤으로 매치되었다. 베스트나 블레이저에는 학교의 엠블럼이 새겨져있다.

교복은 학생의 지위 뿐 아니라 학교에의 소속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의복이다(김지원, 2009)⁵⁰). 특히 학교의 엠블럼이 강하게 드러난 교복의 착용은 프레피의 상징적인 의복으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차별적인 계급을 드러내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학문적 상류계급, 암묵적으로는 경제적 상류계급의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프레피의 문화적 배경에서 보듯 이들은 스스로 상류계급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드라마에서는 이것이 더욱 강하게 시각적으로 표현되기 위하여 프레피의 지위상징성이 강한 교복의 착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사복의 경우에는 미국 동부지역

의 전통적 엘리트 집단의 의복 스타일인 아이비리그 스타일을 착용(김지영, 2015)⁵¹)하고 있었는데 지적 우수성이 내포된 아이비리그 스타일을 통해 그들의 엘리트 이미지를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그림 2> 프레피
출처: 캐슬 시즌1 3화 영상캡처

3-3. 해커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드라마에서도 이러한 사이버범죄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고 해커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드라마에 묘사된 해커는 집단으로 생활하거나 모이기보다는 집에서 혼자 작업하였다. 인간관계에 있어 서툴거나 혹은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캐릭터들이 CSI: 뉴욕이나 본즈 등의 드라마에서 나타났다. 본인의 기술에 대한 자존심이 아주 강한 성격으로 주로 묘사되었다. 대부분 범죄에서 다루어지는 해커들은 비윤리적 해커들이 많았으나 기업이나 정부에 고용된 윤리적 해커들도 등장하였다. 이들은 의상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해커 의상은 8개 에피소드에서 총 14개 착장이 등장하였다. 컴퓨터와 주로 생활하는 고립된 생활방식으로 인해 사회성이 부족하여 인간관계에 서툴고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에 의복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캐주얼한 복식을 주로 착용하였다. 특히 <그림 3>과 같이 유년기 시절에 주로 착용했던 청바지나 티셔츠, 후디, 운동화 등을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에 면바지, 티셔츠, 체크무늬 셔츠 등도 많이 착용되었다. 색에 있어서 뉴트럴 계열과 중채도 이상의 색감이 있는 색을 섞어 입는 경향을 보인다. 헤어, 복장 등의 외모를 꾸미는 데 시간을 소비하지 않으며, 간혹 이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모습까지 보인다.

해커와 같이 컴퓨터와 관련된 직업의 경우 드라마에 표현될 때 단정함보다 편안함을 우선시하며 TPO의 구분 없이 편하게 연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컴퓨터 관련 직업은 협동작업보다는 혼자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회적 표현보다는 본인의 유아적 취향과 편안함 추구에 더 초점을 맞춰 의상이 착용되고 있었다(류수현, 2020).⁵²⁾ 해커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본인의 외모와 상황에 적절한 의복을 착용하기보다는 평소 착용하는 편안한 복장을 어떤 상황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의복의 기능을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의복의 미적 표현의 측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실용적 이미지가 나타났다. 그리고 디자인적 측면에서는 성인으로써 의복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형식을 따르기보다는 후디나 티셔츠, 청바지, 운동화 등과 같이 어린 시절 주로 착용하였던 편안하고 유아적인 의복 형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유아적 이미지로 나타났다.



<그림 3> 해커
출처: 본즈 시즌7 13화 영상캡처

3-4. 노숙자

주로 대도시의 노숙자들이 다루어졌는데 노숙자의 죽음 혹은 노숙자에 의한 범죄 등 피해자 및 가해자로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종종 노숙자만을 죽이는 연쇄살인마의 희생자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정상적인 의식주 생활을 하지 못해 빵 한 조각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범죄 용의자로 자주 지목되기도 하였고,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어두운 곳에 주로 거주하는 습성으로 인해 범죄의 목격자가 되기도 하였다. 공공보호시설 외에도 노숙자들은 뉴욕 특수수사대나 본즈에 나타난 것처럼 지하터널과 같은 일정 지역에 모여서 생활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고 의식주와 관련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도 하지

만 서로 약탈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복에 있어서는 신발, 외투가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이것의 획득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노숙자는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과 성별이 등장하였으며, 경제적 빈곤으로 내몰려 노숙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복무한 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정신 질환을 겪으면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노숙자로 전락한 경우도 다수 나타났다.

노숙자 의상은 13개 에피소드에서 총 29개 착장이 등장하였다. 노숙자의 경우 의복을 마련하는 방법은 구입보다는 버려진 옷의 재활용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스타일이 일관되지 않았다. 또한 야외에서 주로 생활하기에 되도록 많은 옷을 레이어링하여 입고, 장갑, 모자, 머플러 등도 여러 겹 겹쳐 입거나 담요 등으로 몸을 감싸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자 함을 볼 수 있었다. 세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에 <그림 4>와 같이 옷은 많이 더러워진 상태로 연출되었으며 셔츠나 상의를 하의에 넣기보다는 밖으로 빼거나 고르지 못하게 빠져나오는 등 옷매무새에 신경을 쓰지 않은 모습으로 연출되었다. 찢어지거나 손상이 생겨도 제대로 수선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형태들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며, 간혹 어설픈 수선자국들이 보이기도 하였다. 아울러 헤어나 얼굴 분장에 있어서도 <그림 4>와 같이 찢거나 잘 다듬지 못하여 헝클어진 헤어를 하거나 다듬지 못한 긴 헤어가 나타나기도 했고, 수염을 다듬지 못해 덩수룩하게 나 있기도 하며, 얼굴은 더러워진 모습으로 연출되었다.

이러한 노숙자들의 의상은 패션스타일에서는 미국 노동자들의 복식에서 유래된 그런지 룩(Grunge Look)과 유사하다. 그런지 룩은 인간의 가난, 빈부의 차이에 대한 저항의 표현으로서, 초췌한 얼굴화장, 검은색의 혈령하며 남루한 옷차림을 통해 인간의 고뇌를 표현하였다(김민자, 2013)⁵³⁾. 정유경(2003)은 안티패션으로서의 그런지 패션의 조형미를 탈질서, 부조화, 미완성·무정형, 키치·빈곤의 미로 분석하였다.⁵⁴⁾ 노숙자들의 의상에서는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물리적 목적만을 중시하여 더럽고 해진 옷을 입는다거나 신체 보호를 위해 무조건 옷을 많이 껴입는 모습이 주로 나타났다. 이는 실용적, 기능적 측면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착용 가능한 옷을 무조건 껴입을 수

밖에 엿다보니 디자인 요소의 활용에 있어서 조화로운 부분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부조화의 이미지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에서 배척되어 기본적인 의식주를 박탈당하고 살아가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해지고 더럽고 추한 의상을 통해 표현하여 빈곤의 이미지가 나타났다.

각 하위문화집단별 의상의 조형 분석과 이미지 특성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그림 4> 노숙자
출처: CSI:뉴욕 시즌8 10화
영상캡처

<표 2> 하위문화 집단 의상 분석 결과

하위문화	의상의 조형 분석	이미지 특성
흡혈족	-검정색 펑크스타일과 망사, 가죽 소재, 찢어진 티셔츠, 빅토리안 스타일의 드레스와 남성 슈트, 스티드가 박힌 목걸이, 십자가 펜던트 -흰 피부, 스모키 아이라인과 검붉은 립스틱, 문신과 뱀파이어 송곳니 착용	관능성 반사회성
프레피	-블레이저, 셔츠, 타이, 베스트 등의 교복 -버튼다운 셔츠, 니트베스트, 피케 셔츠, 면바지, 니트가디건, 더플 코트 등의 아이비리그스타일	지위상징성 엘리트
해커	-유년기 시절에 주로 착용했던 청바지나 면바지, 티셔츠, 체크 무늬 셔츠, 후디 등 캐주얼 웨어	실용성 유아성
노숙자	-의복 재활용, 찢어지거나 더러워진 옷, 무질서한 레이어링	부조화 빈곤

4. 결론 및 제언

최근의 미국 경찰드라마에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하위문화 집단들을 소재로 하여 그들이 겪는 가치문제, 타 문화 집단과의 갈등 등의 문제를 범죄의 형태로 다루면서 다양한 하위문화 집단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2000년 이후 5년 이상의 시즌을 이어가며 흥행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았으며 미국의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를 선정하여 이 드라마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하위문화 집단을 추출하여 그 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의상의 형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드라마 속에서 하위문화 집단 캐릭터의 의상이 어떤 이미지로 표현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드라마 속 캐릭터 표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하위문화 집단은 흡혈족, 프레피, 해커, 노숙자 집단이 선정되었다.

흡혈족은 흡혈귀와 흡사한 분장을 주로 하며 검정색의 펑크 룩, 고스 룩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였다. 저항적 메시지의 의복과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인체를 드러내는 의상을 통해 반사회적 이미지와 관능적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프레피는 학교 엠블럼이 두드러진 교복이나 아이비리그 스타일의 의상을 착용함으로써 지위상징적 이미지와 엘리트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해커는 사회성이 부족하고 컴퓨터 앞에서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많아 유아기에 주로 입던 의복을 계속 입거나 실용적인 캐주얼 스타일의 의복을 주로 착용함으로써 실용적 이미지와 유아적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노숙자는 사회에서 배척되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힘들어 버려진 옷을 재활용함으로써 비위생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의상의 무작위적인 조합으로 표현되어 부조화의 이미지와 빈곤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미디어에 표현된 하위문화 집단에 대한 묘사가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하위문화 집단에 대한 내용과 기본적인 정보 측면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단 범죄는 인간의 욕망이 극단적으로 몰렸을 때 발생하기에 범죄와 연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자극적이고 극단적 연출이 이루어졌다. 의상에 있어서도 이러한 측면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특히 흡혈족은 문화적 특성과 행위에 있어서 성적 은유의 측면이 강조되면서 관능성이 부각되었고, 해커는 사회성 부족이라는 특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

유아성이 의상을 통해 더 부각되어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프레피 또한 상류계층의 부유함과 특권의식 이면에 존재하는 어두운 욕망을 반전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엘리트 이미지가 오히려 강하게 드러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하위문화 집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의상에 대한 분석 결과는 드라마 의상디자이너들에게 유사한 캐릭터의 의상 디자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선택된 하위문화 집단은 패션의 산업적 측면에서 기존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집단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의복문화의 측면에서 집단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따른 복식문화의 접근은 인류학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의복에의 욕구는 점차 세분화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의류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하위문화 집단에 대한 이해는 다양해진 소비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단 미국이라는 지역적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기에 이를 타 국가, 문화권을 아우르는 일반화로 결론짓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각 국가와 문화권에는 그 사회 내의 독특한 하위문화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하위문화가 대중매체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하위문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디어에 표현된 하위문화 집단 캐릭터에 대한 연구이기에 실제 하위문화 집단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디어에서는 시나리오 전개와 시각적 자극을 위해 다소간의 과장 및 왜곡이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드라마의 표현적 특성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여러 드라마에 공통적으로 등장한 하위문화 집단을 추출하다보니 하위문화 집단이 다양하게 도출되지 못하였다. 대중들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원하기에 드라마는 같은 소재를 다루더라도 다른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같은 하위문화 집단이라도 각 드라마에서는 스토리가 모두 다르게 전개되었으며 하위문화 집단에 있어서 초점을 둔 부분들도 상이하였다. 경찰드라마는 당분간 인기를 지속할 것이므로 꾸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하위문화 집단으로 범위를 넓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드라마에 표현된 하위문화 집단의 의상과 실

제 하위문화 집단의 비교 연구로 실제 하위문화 집단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대중매체에서 시각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분석함으로써 미디어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 1) 하종원, 「경찰드라마의 특성과 장르적 발전에 관한 연구: 미국의 Police Procedural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Vol.21(2), 2014, pp.30-31.
- 2) 양미경, 「하위문화 복식의 스타일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5.
- 3) 양미경, 「하위문화 복식의 스타일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6.
- 4) 류수현, 노주현, 「영화의상 연구 분류 체계에 따른 국내 영화의상 연구 동향 분석」, 디자인지식저널, Vol.28, 2013, pp.131-142.
- 5) 류수현, 노주현, 「영화의상 연구 분류 체계에 따른 국내 영화의상 연구 동향 분석」, 디자인지식저널, Vol.28, 2013, p.138.
- 6) 류수현, 「영화에 나타난 뱀파이어 캐릭터 유형에 따른 이미지 특성 연구」, 디자인지식저널, Vol.31, 2014, p.307.
- 7)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서울: 한울, 2003, pp.27-42.
- 8) CSI: NY Awards. Retrieved 2020.7.25. from <https://www.imdb.com/title/tt0395843/awards>
- 9) Law & Order: Criminal Intent. Retrieved 2020.7.25. from https://en.wikipedia.org/wiki/Law_%26_Order:_Criminal_Intent#Awards/nominations
- 10) Law & Order: Criminal Intent Awards. Retrieved 2020.7.25. from https://www.imdb.com/title/tt0275140/awards?ref_=tt_awd
- 11) Bones Awards. Retrieved 2020.7.25. from <https://www.imdb.com/title/tt0460627/awards>
- 12) Castle Awards. Retrieved 2020.7.25. from <https://www.imdb.com/title/tt1219024/awards>
- 13) CSI: NY. Retrieved 2020.7.25. from https://en.wikipedia.org/wiki/CSI:_NY#Nielsen_ratings
- 14) Bones. Retrieved 2020.7.25. from [https://en.wikipedia.org/wiki/Bones_\(TV_series\)#American_ratings](https://en.wikipedia.org/wiki/Bones_(TV_series)#American_ratings)

- 15) Law & Order: Criminal Intent. Retrieved 2020.7.25. from https://en.wikipedia.org/wiki/Law_%26_Order:_Criminal_Intent
- 16) Castle. Retrieved 2020.7.25. from [https://en.wikipedia.org/wiki/Castle_\(TV_series\)#U.S._Nielsen_ratings](https://en.wikipedia.org/wiki/Castle_(TV_series)#U.S._Nielsen_ratings)
- 17) 이효숙, 「패션이미지에 따른 의복스타일과 헤어스타일의 상관성」,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7.
- 18) 박승현, 이윤진, 「장르의 속성에 대한 고찰」, 언론과학연구, Vol.7(1), 2007, pp.78-79.
- 19) 하종원, 「경찰드라마의 특성과 장르적 발전에 관한 연구: 미국의 Police Procedural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Vol.21(2), 2014, p.31.
- 20) 권양현, 「텔레비전 수사드라마에 나타난 캐릭터 유형의 변화 양상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Vol.42, 2013, p.252.
- 21) 하종원, 「경찰드라마의 특성과 장르적 발전에 관한 연구: 미국의 Police Procedural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Vol.21(2), 2014, p.26.
- 22) 권양현, 「텔레비전 수사드라마에 나타난 캐릭터 유형의 변화 양상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Vol.42, 2013, p.255.
- 23) 하종원, 「경찰드라마의 특성과 장르적 발전에 관한 연구: 미국의 Police Procedural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Vol.21(2), 2014, p.46.
- 24) Snauffer, D. 『Crime Television』, West Port: Praeger, 2006.
- 25) 하종원, 「경찰드라마의 특성과 장르적 발전에 관한 연구: 미국의 Police Procedural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Vol.21(2), 2014, p.37.
- 26) Laycock, J. 「Real Vampires as an identity group: Analyzing causes and effects of an introspective survey by the vampire community」, Nova Religio, Vol.14(1), 2010, pp.4-8.
- 27) Laycock, J. 「Real Vampires as an identity group: Analyzing causes and effects of an introspective survey by the vampire community」, Nova Religio, Vol.14(1), 2010, pp.4-8.
- 28) Laycock, J. 「Real Vampires as an identity group: Analyzing causes and effects of an introspective survey by the vampire community」, Nova Religio, Vol.14(1), 2010, pp.4-8.
- 29) 프레피. Retrieved 2020.6.1.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89318&cid=42822&categoryId=42822>
- 30) 정유진, 「남성 프레피 패션 스타일링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4.
- 31) 김범연, 「효율적인 대면설문 기법 구축을 통한 해커 프로파일링 방안 연구: 해커의 사회적, 심리적, 기술적 요인에 따른 해킹유형을 예측하기 위한 기초 연구」,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p.13.
- 32) 이현희, 「해킹과 정보보호기술의 동향」, 정보사회와 미디어, Vol.1, 2000, p.195.
- 33) 이현희, 「해킹과 정보보호기술의 동향」, 정보사회와 미디어, Vol.1, 2000, p.195.
- 34) 이현희, 「해킹과 정보보호기술의 동향」, 정보사회와 미디어, Vol.1, 2000, p.195.
- 35) 김범연, 「효율적인 대면설문 기법 구축을 통한 해커 프로파일링 방안 연구: 해커의 사회적, 심리적, 기술적 요인에 따른 해킹유형을 예측하기 위한 기초 연구」,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p.13.
- 36) 김범연, 「효율적인 대면설문 기법 구축을 통한 해커 프로파일링 방안 연구: 해커의 사회적, 심리적, 기술적 요인에 따른 해킹유형을 예측하기 위한 기초 연구」,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p.13.
- 37) Taylor, P. A. 『Hackers: Crime in the digital sublime』, London: Routledge, 1999, pp.5-190.
- 38) Woo, H. J., Kim, Y. R. & Dominick, J. R. 「Hackers: Militants or Merry pranksters? A Content Analysis of Defaced Web Pages」, Media Psychology, Vol.6(1), 2004, pp.63-82.
- 39) 신상화, 「해커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2018, p.145.
- 40) 서성교, 「사이버 범죄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서남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12.
- 41) 이현희, 「해킹과 정보보호기술의 동향」, 정보사회와 미디어, Vol.1, 2000, p.81.
- 42) 이현희, 「해킹과 정보보호기술의 동향」, 정보사회와 미디어, Vol.1, 2000, p.80.
- 43) 신상화, 「해커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2018, p.145.
- 44) 원정숙, 「노숙자의 삶의 경험: 시설 노숙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p.1.

- 45) 김경원, 「노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6-9.
- 46) 원정숙, 「노숙자의 삶의 경험: 시설 노숙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p.2.
- 47) 원정숙, 「노숙자의 삶의 경험: 시설 노숙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p.9.
- 48) 최우림, 「노숙자의 노숙력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p.159-161.
- 49) 박준현, 「21세기 패션트렌드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히피와 펑크풍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p.25-27.
- 50) 김지원, 「패션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교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18.
- 51) 김지영, 「국내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프레피 룩 디자인 분석」, 복식문화연구, Vol.23(6), 2015, p.988.
- 52) 류수현, 「미국 TV드라마 '레버리지(Leverage)'에 나타난 직업에 따른 의상: 사회계급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Vol.25(3), 2020, p.250.
- 53) 김민자, 『복식미학강의 1』, 서울: 교문사, 2013, p.215.
- 54) 정유경, 「그런지(Grunge)패션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중심으로」, 흥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p.102-106.

참 고 문 헌

- 권양현, 「텔레비전 수사드라마에 나타난 캐릭터 유형의 변화 양상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Vol.42, 2013.
- 김경원, 「노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민자, 『복식미학강의 1』, 서울: 교문사, 2013.
- 김범연, 「효율적인 대면설문 기법 구축을 통한 해커 프로파일링 방안 연구: 해커의 사회적, 심리적, 기술적 요인에 따른 해킹유형을 예측하기 위한 기초 연구」,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김지영, 「국내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프레피 룩 디자인 분석」, 복식문화연구, Vol.23(6), 2015.
- 김지원, 「패션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교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서울: 한울, 2003.
- 류수현, 「미국 TV드라마 '레버리지(Leverage)'에 나타난 직업에 따른 의상: 사회계급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Vol.25(3), 2020.
- 류수현, 「영화에 나타난 뱀파이어 캐릭터 유형에 따른 이미지 특성 연구」, 디자인지식저널, Vol.31, 2014.
- 류수현, 노주현, 「영화의의상 연구 분류 체계에 따른 국내 영화의의상 연구 동향 분석」, 디자인지식저널, Vol.28, 2013.
- 박승현, 이윤진, 「장르의 속성에 대한 고찰」, 언론과 학연구, Vol.7(1), 2007.
- 박준현, 「21세기 패션트렌드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히피와 펑크풍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서성교, 「사이버 범죄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서남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신상화, 「해커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2018.
- 양미경, 「하위문화 복식의 스타일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원정숙, 「노숙자의 삶의 경험: 시설 노숙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이현희, 「해킹과 정보보호기술의 동향」, 정보사회와 미디어, Vol.1, 2000.

- 이효숙, 「패션이미지에 따른 의복스타일과 헤어스타일의 상관성」,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정유경, 「그런지(Grunge)패션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정유진, 「남성 프레피 패션 스타일링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최우림, 「노숙자의 노숙력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프레피. Retrieved 2020.6.1.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89318&cid=42822&categoryId=42822>
- 하종원, 「경찰드라마의 특성과 장르적 발전에 관한 연구: 미국의 Police Procedural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Vol.21(2), 2014.
- Bones (TV series). Retrieved 2020.7.25. from [https://en.wikipedia.org/wiki/Bones_\(TV_series\)#American_ratings](https://en.wikipedia.org/wiki/Bones_(TV_series)#American_ratings)
- Bones Awards. Retrieved 2020.7.25. from <https://www.imdb.com/title/tt0460627/awards>
- Castle (TV series). Retrieved 2020.7.25. from [https://en.wikipedia.org/wiki/Castle_\(TV_series\)#U.S._Nielsen_ratings](https://en.wikipedia.org/wiki/Castle_(TV_series)#U.S._Nielsen_ratings)
- Castle Awards. Retrieved 2020.7.25. from <https://www.imdb.com/title/tt1219024/awards>
- CSI: NY. Retrieved 2020.7.25. from https://en.wikipedia.org/wiki/CSI:_NY#Nielsen_ratings
- CSI: NY. Retrieved 2020.7.25. from <https://www.imdb.com/title/tt0395843/awards>
- Law & Order: Criminal Intent Awards. Retrieved 2020.7.25. from https://en.wikipedia.org/wiki/Law_%26_Order:_Criminal_Intent#Awards/nominations
- Law & Order: Criminal Intent Awards. Retrieved 2020.7.25. from https://www.imdb.com/title/tt0275140/awards?ref_=tt_awd
- Law & Order: Criminal Intent. Retrieved 2020.7.25. from https://en.wikipedia.org/wiki/Law_%26_Order:_Criminal_Intent
- Laycock, J. 「Real Vampires as an identity group: Analyzing causes and effects of an introspective survey by the vampire community」, Nova Religio, Vol.14(1), 2010.
- Snauffer, D. 『Crime Television』, West Port: Praeger, 2006.
- Taylor, P. A. 『Hackers: Crime in the digital sublime』, London: Routledge, 1999.
- Williams, E. 「Emotioanl religion? Exploring the religious belief and religious experiences of real vampires」,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Vol.20(4), 2017.
- Woo, H. J., Kim, Y. R. & Dominick, J. R. 「Hackers: Militants or Merry pranksters? A Content Analysis of Defaced Web Pages」, Media Psychology, Vol.6(1), 2004.

